權近‘孝行錄’주해의 경세론적 의미

〔연재 제4회〕

姜 文 植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⑴ ‘효행에 대한 보응’의 강조[承前]

다음으로 권근은 효행에 대한 보응에 있어 하늘의 보응뿐만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현실적 보응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효행록’에 수록된 효행에 대한 현실적 보응의 내용을 정리하면,

효행에 대한 현실적 보응은 그 주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주 또는 군주의 대리인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보응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는 효행 설화의 주인공들이 지극한 효성으로 군주 또는 지방관을 감동시켜서 그들로부터 죄에 대한 사면, 정려문 건립 등의 표창, 관직 제수 등의 보상을 받았으며, 나아가 그 자손들까지도 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효행록’에 수록된 하늘의 보응에 관한 내용은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신비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실적 보응의 내용은 모두 실현 가능하며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다. 권근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제영속韙縈贖父’의 논평에서 ‘효의 정성이 지극하면 그 이로움이 매우 넓다’라고 하여 효행의 결과가 현실에서 실질적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권근은 군주나 지방관이 효행에 대해 보응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는 효행을 표창하고 장려하여 풍속을 교화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화의 측면에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확립’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도적 또는 적국의 군대가 효행에 대한 보응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효행의 주인공이 도적 또는 적군을 만나 위기에 처했지만 지극한 효성이 오히려 도적과 적군까지도 감동시킴으로써 목숨을 구하고 그들로부터 물질적 보응을 받았으며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는 앞서 본 군주 또는 지방관의 보응보다는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권근은 이 설화에 대한 논평에서 도적들이 비록 사납고 미욱하지만 이들 역시 사람의 아들로서 올바른 천품天稟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지극한 효성에 감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지극한 효성은 도적과 같이 사악한 사람까지도 감동시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극한 효행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유익의 최대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권근이 ‘효행록’ 논평에서 효행에 대한 현실적 보응 내용을 중요하게 다룬 것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보응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늘의 보응 내용이 갖는 비현실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극한 효행은 도적까지도 감동시킬 만큼 현실적 유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더욱 효행의 실천에 힘쓰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효행에 대한 보응’을 강조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하는 말에 아버지가 비록 자애롭지 않더라도 자식은 불효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격언이다’라고 하여 효행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당위’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에 따라 권근은 인간이 먼저 효행에 대한 보응을 기대하며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은 ‘등유기자鄧攸棄子’ 설화에 대한 논평에 잘 나타나 있다.

‘등유기자鄧攸棄子’ 설화는 진晉나라 사람 등유鄧攸 부부가 아들과 조카를 데리고 피난을 가던 중 도적을 만나 수레를 빼앗기자, 아들과 조카를 모두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아들을 버리고 조카만 데리고 피난했다는 내용이다. 등유鄧攸는 아들을 버리면서 ‘내 아우는 일찍 죽고 오직 이 애 하나만 남았다. 대가 끊어지게 해서는 안되니 응당 내 아이를 버려야 한다. 다행이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후 등유 부부는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였으며, 등유 부부가 죽은 후 조카가 등유 부부의 삼년상을 지냈다고 한다.

‘등유기자’ 설화 원문과 이제현의 찬에서는 등유의 행동을 의롭다고 칭찬하면서 다시 자식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천도를 알기 어렵다’고 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 권근은 등유가 자식을 다시 얻는 보응을 받지 못한 이유를 확실히 분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논평을 통해 등유가 보응을 받지 못한 까닭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였다.

권근은, 기본적으로 등유의 행동이 의리가 지극한 것이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제현 등과는 좀 다른 입장을 피력하였다. 즉 등유가 하늘의 보응을 받지 못한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고 본 것이다. 먼저 권근은 ‘효행록’의 내용 중 어린 아이를 버린 다른 예로 ‘곽거매자郭居埋子’와 ‘노고포장魯姑抱長’을 든 다음, 이들과 비교해 볼 때 등유의 행적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곽거郭居는 어머니를 위하여 아이를 버렸고, 노고魯姑는 죽은 남편을 위하여 아이를 버렸는데, 둘 모두 하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지금 백도伯道(등유의 자字)가 동생을 위하여 자기의 아이를 버린 것은 곽거가 어머니를 위해 아이를 버린 것과 비교해 볼 때 경중에 차이가 있다. 또 곽거는 부부가 함께 있었으니 노고가 남편 없이 혼자 도망가야 했던 상황과는 달리 오히려 둘 모두를 보존할(데리고 갈) 수 있는 이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스스로 하늘이 반드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기의 아이를 버렸으니, 인륜의 큰 변고에 대처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바가 있다.

즉 권근은 동생을 위한 등유의 우애와 의리는 인정할 만하지만 곽거나 노고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아이를 버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며, 부부가 함께 있었으므로 비록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두 아이를 모두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아들을 버린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권근은 곽거나 노고가 하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등유가 ‘마땅히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먼저 하늘의 보응을 기대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등유기자鄧攸棄子’ 설화에 대한 권근의 비판적 논평에는 ‘효행에 대한 보응’의 강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권근은 ‘효행록’을 논평하면서 사람이 천성을 다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지극히 하면 반드시 하늘의 신속한 보응이 따른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하지만 ‘효행에 대한 보응’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효행을 실천하는 것보다 보응을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보응을 받기 위한 형식적 효행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근은 바로 그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미리 경계하기 위해 ‘등유기자’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등유의 행적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통해 사람은 오직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극한 효행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먼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늘의 보응을 바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혹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의 싹을 미연에 막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⑵ 중용中庸의 도道를 넘는 효행孝行에 대한 긍정

권근은 ‘효행록후서孝行錄後序’에서 ‘효행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비록 성인聖人이 만든 중용中庸의 제도를 뛰어넘는 듯한 일이 왕왕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이 반드시 여기에 이르고서야 지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스스로 그러한 행동이 예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즉 ‘효행록’에 수록된 내용 중에는 중용의 도를 뛰어넘는 지나친 일이 종종 나타나지만 중용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을 비난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모를 섬기는 데 정성을 다한 나머지 스스로 중용의 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지극한 효성이라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권근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효행 설화에 대한 논평에서 예禮의 중도中道를 뛰어넘는 효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즉 ‘곽거매자郭居埋子’에서는 어머니가 굶주릴까 걱정하여 자식을 땅에 묻으려 했던 곽거의 행동에 대해 ‘비록 지나친 일 같지만 효성의 절실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후에야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문정文貞이 어버이가 돌아가시자 3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일과 신도반申徒蟠이 부친상을 당한 후 10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고 기일이 되면 3일 동안 금식을 먹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성인이 만든 제도에 지나친 바가 있지만 자식으로서 지극한 효성을 다했다고 할만하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권근이 일상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효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 역시 중도中道를 넘어서는 효행을 긍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권근은 ‘하기 어려운 일에 마땅히 힘쓰면 하기 쉬운 일에는 힘쓰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각에서 평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에까지 힘을 다하여 어머니를 섬긴 강시姜詩 부부, 난리를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의 음식 봉양에 지극한 정성을 다했던 채순蔡順과 강혁江革, 다리를 베어 병든 어머니를 봉양한 왕무자王武子의 아내 등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권근이 이처럼 중용中庸을 넘는 효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단궁 하檀弓下’의 내용이 주목되는데, 여기에서 권근은 성인이 예禮를 제정한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로부터 현인賢人은 항상 적고 불초자不肖者는 항상 많다. 진실로 예제禮制로써 품절하지 않으면, 애정哀情이 유자孺子의 사모함과 같은 자는 비록 지나침이 있더라도 오히려 가하겠지만 불초不肖하여 슬픔을 잊으면 악惡하고 배반하여 사람의 도리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예절禮節을 만들어서 현자로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불초자로 발돋움하여 미치게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권근은 ‘과過’나 ‘불급不及’이 없는 중용中庸을 이루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지나침은 오히려 가하지만 불초하여 슬픔을 잊으면 악하고 배반하여 사람의 도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은 권근이 현자보다는 불초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지나친 예는 비록 중용을 지키지 못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근본 도리를 잃은 것은 아니므로 불초하여 예에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며, 따라서 예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초자를 교화하여 중용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용의 도를 뛰어넘는 행위가 효의 실천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이 갖는 긍정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도를 뛰어넘는 효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과過’와 ‘불급不及’을 조율하여 중용을 찾으려는 예의 본질에서 벗어나 ‘과’ 또는 ‘후厚’의 측면에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효행록’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은 사대부층과 비교해 볼 때 현자보다 불초자에 가까운 이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교화하여 ‘불초’·‘불급’의 단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보다 높은 실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비록 최대치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간 단계까지는 올라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효행록’ 주해를 통해 일반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효행 사례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키고 격려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권근이 예의 중도를 뛰어넘는 효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려한 것의 이면에는 역시 ‘교화의 극대화 추구’라고 하는 경세적·현실적 목적성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